

승가 기본교육 강화 역점

조계종 승가령·교육법 개정안 확정

조계종 승가대학령과 교육법 및 기본교육미수자 대책안이 최종 확정 발표됨으로써 교육원은 새로이 지방승가대학 체제 정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공포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된 이들 법령안은 빠른 시일내에 열릴 총무원 총무회의 및 총회의 결의를 받아 7월 2일까지 개정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확정 시행된다.

교육원은 5월 27일 제27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학년정원 7인이상, 총학인정원 20인이상 80인 이하, 교수 3인이상(총학인정원이 50인 이상인 때에는 5인이상)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미인가 승가대학은 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단인가를 받을 것과 전봉도당에 위치한 승가대학은 사미와 사미니를 함께 수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교육원이 공포했던 학년정원 12인이상, 총학인정원 50인이상, 교수 5인이상에서 사실상 교구본사 및 교직자들의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해 공포된 승가령에 완강히 반대했던 교구본사 및 전국교직자연합의 요구와는 다소 거

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년간의 인가 유예기간이나 교수 수는 합의점을 찾은 상태나 학년 학인 제한없이 총원을 하한선 20명 상한선 70명으로 하자는 교구본사 주자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원 80인이하 규정에 있어 사승승가대학의 경우 개정일로부터 4년 후에 적용하며, 사미니승가대학의 경우에는 유보키로 한 것은 일선 강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기존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행자교육원 수확자격을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할 것이나, 현행 6개월의 행자

교육과정을 1년으로 늘린 것은 승가기본교육정착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기초교육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미, 사미니계 수지 후 2년 이내에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 사미니의 승적을 박탈한다'는 종단 기본교육 미이수자 대책안과 '은사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도제로 하여금 종단의 의무



한명우 기자

2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조계종 승가대학령과 교육법 및 기본교육 미이수자 대책안이 최종 확정됐다.

행자교육 6개월서 1년으로 학인수등 당초안보다 하향조정

쉽게 면기 어려울 것 같다. 수석 교무국장 주경수님은 "실제로 해인사 등 학인정원이 80명을 훨씬 넘는 승가대학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개정안에 맞지 않는 요건을 가진 승가대학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행자교육원 교수사와 임원들이 요청했던 행자교육원 상설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구본사들은 당해사찰에 행자교육원이 설치되는 것을 꺼리는 형편이고, 예산문제 또한 공과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난제를 안고있어 행자교육원 상설화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조직구성 매듭 '본격 활동'

중앙신도회 10일 첫 운영회의 의미

총무원과의 불화설에 휩싸여있는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10일 교구신도회장과 사무국 부장급이상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회의를 열어 조직정비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2년여의 산고 끝에 3월 15일 창립한 중앙신도회는 그동안 매듭짓지 못했던 부회장단 인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사항을 결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운영회의에서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과 신도회 불화설은 재정확보 방안의 이견에서 비롯됐다. 총무원측은 부회장단과 지도위원 영입을 통한 재정확보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신도회는 특정인에 대한 부담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 지역인배 및 사회적 신망도를 우선고려해 명단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일치가 늦어져 아직까지 부회장단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중앙신도회는 신도교무국을 신도회 재정으로 이관 또는 총무원과 신도회 공

동명의 예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국 적립액은 5월말 현재 약 3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도 총무원은 난색을 표했다. 때문에 총무원과 신도회와의 갈등으로 신도회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의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다 중앙신도회장 명의의 '지금까지의 북한동포돕기 수성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일간지 광고가 불화설을 부추겼다.

한명우 기자

부회장단·사업계획 등 결정될듯 교무국 총무원 공동예치 '미지수'

당초 총무원장과 신도회장 공동명의로 광고를 게재키로 했으나,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월주님이 보류를 요청했으나 송회장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해 불쾌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올기도 했다.

송회장은 5월 29일 "직접전달할 수 있는 방법만이 북한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라며 "총무원장도 광고내용을

수요

제 17회 교정대상시상식에서 본상 자비상을 수상한 천운스님(대둔사 주지)은 24년간 광주·전남지역 교도소를 순회하며 교정포교에 힘써왔다. 스님은 5월 22일 시상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승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사회복지활동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의 자비실천의 삶을 들여본다. <편집자 주>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천운스님

"교화는 사실상 내공부"

- 교정대상 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교감입니다. 상을 받았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의 소명을 받은 그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준것은 사회가 불자들에게는 바램으로 받아들입니다. 스님들은 물론 불자들이 재소자교화에 더욱 매진했으면 합니다.

- 언젠가부터 교정교회활동을 하시게 됐는지요.

▲73년 구래 화엄사 주지시절 순천교도소장과 교도과장이 찾아와서 타종교는 재소자교화가 잘 되는데 불교는 안된다는 법문을 부탁해 온것이 계기가 됐지요. 이후부터 순천교도소 뿐 아니라 장흥·목포·광주교도소를 차례로 거치게 됐습니다.

- 교정활동하시며 보람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 재소자 교화가 사람을 다루는 일인만큼 사실상 내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스님께서 재소자교화 뿐 아니라 아동복지에도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적후 화순 용암사 주지로 있었는데 거리를 헤메는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

다. 이 예를 질로 데려와서 키워지요. 70~80여명씩 데리고 살다가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40여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아이들이 '아버지스님' 하며 찾아와 얼굴을 가슴에 붙이면 그것으로 그만이지요.

- 힘도 많이 드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방구 밖세 구린내 속에서 살 줄 알아야만 부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구이다 보니 아이들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

요. 아이들이 방황해도 호통치지 않았 습니다. 진심으로 느낄때까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지요. 자식은 어머니가 키워야 한

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스님께서 광주지역에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계획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광주 향림사에는 노인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관을, 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은 별도의 복지관을 광주외곽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광주우상병원을 인수하여 우수인력과 최신 기계를 갖춘 불교병원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원우 기자

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도회 사무국은 재정확보 방안 및 올해의 사업계획안을 월주 총무원장에게 보고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일간지광고 문제삼아 일부 단체에서 송회장의 사퇴를 요구,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전불련 경발련 대불련 등 교계 7개단체는 5월 22일 성명을 통해 "자신이 소속된 조계종단이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종단의 방침을 전연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발표한 것은 불교도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송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大蓮 李永子박사(동국대 불교대학원장)는 우리나라 여성불교학자 1호다. 이박사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천태(天台)학자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그녀는 5월 26일 거행된 '이영자박사 화갑은총 봉정식'은 더욱 시선을 끌었다.

불교학 연구와 후학육성의 외길 30여년. 밀고 먼길을 씀없이 개척하고 정진하여 한층이 큰 연꽃(大蓮)을 피운 이 박사에겐 1천여 학생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박사의 불교학 입문은 대학 졸업후 불교에 반하여 동국대학교에 학사편입하면서 시작됐다. 63년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니 36년 세월을 부처님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학문과 신행으로 익혔다. 그 외길은 인고의 길이었고 각고의 길이었으리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오늘을 걸실줄 볼 수 있었겠는가.

저서 <한국 천태사상의 전개>를 비롯 10권의 역사, 17권의 공자, 21편의 연구논문, 13회의 학술발표, 잡지와 신문에 실린 110편의 불교평론과 에세이는 이 박사의 학문적 성과이며 업적이다.

원만하면 110편의 글을 정리하여 단행본 한두권쯤 펴냈을지 한데 이 교수는 연구성과물 외의 책을 내놓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여학생강,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 학문의 길, 학교 발전의 길에 남긴가 유별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여성화회회장을 맡아 불교계에도 여걸이 있음을 입증했다. 더불어 불교의 여성관을 학문적으로 정립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박사가 없었으면 불교여성계는 어찌 했을까.

이영자교수를 임지전적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의 학문세계를 높이 세운 측사는 말의 잔치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교수는 찬사를 과찬으로 받으며, 외길을 지켜준 90노모와 오라버니에게 박수를 들렸다. 긴여정을 꽃이 달려온 고집스런 학자는 눈시울을 적셨다.

오직 불교학에 열정을 불태우며 학문의 탐을 쌓은 이영자박사의 더 큰 회향을 기대한다.

목어 여성불교학자 1호

이박사의 불교학 입문은 대학 졸업후 불교에 반하여 동국대학교에 학사편입하면서 시작됐다. 63년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니 36년 세월을 부처님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학문과 신행으로 익혔다. 그 외길은 인고의 길이었고 각고의 길이었으리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오늘을 걸실줄 볼 수 있었겠는가.

저서 <한국 천태사상의 전개>를 비롯 10권의 역사, 17권의 공자, 21편의 연구논문, 13회의 학술발표, 잡지와 신문에 실린 110편의 불교평론과 에세이는 이 박사의 학문적 성과이며 업적이다.

원만하면 110편의 글을 정리하여 단행본 한두권쯤 펴냈을지 한데 이 교수는 연구성과물 외의 책을 내놓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여학생강,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 학문의 길, 학교 발전의 길에 남긴가 유별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여성화회회장을 맡아 불교계에도 여걸이 있음을 입증했다. 더불어 불교의 여성관을 학문적으로 정립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박사가 없었으면 불교여성계는 어찌 했을까.

이영자교수를 임지전적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의 학문세계를 높이 세운 측사는 말의 잔치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교수는 찬사를 과찬으로 받으며, 외길을 지켜준 90노모와 오라버니에게 박수를 들렸다. 긴여정을 꽃이 달려온 고집스런 학자는 눈시울을 적셨다.

오직 불교학에 열정을 불태우며 학문의 탐을 쌓은 이영자박사의 더 큰 회향을 기대한다.

대둔사 참선수련회 (Zen Retreat)

여기 숙박과 혼돈을 떠난 한 세상이 있도다.
한국 선가의 귀감인 서산대사의 화두선풍에 뜨거운 번뇌를 식히옵시라.

모집요강

- A4용지에 우측 양식대로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우표가 첨부된 반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 참가신청서는 본인이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가족 및 친지는 참가 좌수를 달리지 않습니다.
-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 동참금은 7만원입니다.(자원봉사자는 면제)
- 6월 27일까지 동참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536-810)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 수련원
- 문의처: 중무소 전화: 0634-34-5502, 5503
팩스: 0634-35-5357
- Foreigners may join, An opportunity to sit a Korean style Koan Zen Retreat to be held at Daehungsa Buddhist Monastery, Send enquires and application to:

Retreat Centre, Daehungsa, Gurimni Samsanmyon, Haenamgun Channam 536-810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둔사(대홍사) 주지 천운 수련원장 지수 합장

당신의 20시간을 빌려주십시오. 유창한 일본어로 돌려드립니다!

작년 이만때만 해도 일본어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NHK비디오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자유자재입니다. 文部省 능력시험에도 1급(331점) 받았습니. NHK비디오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두 NHK 덕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

정인봉 변호사

일본어를 가장 잘 아는 일본국립국어연구소와 30년간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NHK가 '세계 제일의 일본어 교재'라며 전문가의 자존심을 쏟아부은 교재-이것이 NHK비디오 일본어입니다.

1집 초, 중급편: 일본글자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본어에 대해 감각하던 사람이 일상대화쯤은 거뜬히 해 내게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2집 고급편: NHK일본어에는 일본느낌, 일본말투가 그대로 살아있는 "일본자재"가 담겨있습니다. 자! 이제 고급 일본어의 전수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3집 LIVE 편: 기본적인 일본어의 재미는 이미 느끼신 분. 현재 실력을 좀 더 갈고 닦아 '수준급'에 오르실 분, 일본인과 속 시원하게 '진짜 얘기'를 하려는 분, 여기 NHK Live Japanese 50이 있습니다.

* 세계적 권위의 영어비디오 교재와 기타 어학교재도 있습니다.

일본어 판매의 가장 쉬운길

NHK LIVE 비디오 일본어 지금 문의하십시오. 당신도 놀라게 달라집니다.

(02)720-3690

국내독점 라이선스 시사일본어사